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관심’으로 하향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한 달 이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위기경보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됐다.

지난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는데 따른 조치다.

경남 창녕군 방역지역 해제 및 향후 추진계획

(발생 상황)

5.22일 경남 창녕(육용오리)에서 105일 만에 신규 발생

- 지난 동절기는 '23.12.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24.2.8일 충남 아산 육용오리 농장까지 31건 발생, 360만수 살처분
- 2.8일 31차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4.17일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였으나, 시즌 종식 후 이른 여름에 이례적으로 발생

(추진 일정)

발생농장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완료일로부터 28일이 지난 후, 방역지역 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방역지역 해제

- 발생일(5.22일) → 잔존물 처리 완료일(5.24일) → 28일 경과일(6.21일)
-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6.28일(잠정) 위기 경보 하향 조정(주의→관심) 및 평시 방역체계 전환

(향후 계획)

하절기 발생사례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AI 방역 과정 중 나타난 미흡사항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

- (하절기 대책) 경남 창원군 가금농장 하절기 발생 및 해외 포유류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6.28.)
 -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및 對 국민 폐사체 신고 홍보 강화, 인플루엔자 모니터링 대상 축종 확대(2종→5종) 및 검사물량 확대, 전국 가금농장 방역 교육·점검 등
- (살처분 범위 조정)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 방안 마련·시행(~6.28.)
- (제도 개선) '24/'25년 동절기 AI 방역체계 보완 및 효과적인 방역조치의 제도화를 위해 고시 및 SOP 개정* 추진(~9.30.)
 - * 개정안 마련(6월) → 협의회(7월) →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7~8월) → 개정(9월)

| 일자(기간) | 내용 | 비고 |
|--------------|--|----------|
| '24.5.22 | 경남 창원군 육용오리 농장 발생일 | |
| '24.5.24 |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완료일 | |
| '24.6.14 | 관리·보호지역의 예찰지역 전환 | 21일 경과 |
| '24.6.21 | 방역지역 해제 검사 가능일 | 28일 경과 |
| '24.6.21~27 | 방역지역(~10km) 가금농장 정밀(임상) 검사 | 7일 소요 예정 |
| '24.6.28 | 방역지역 해제 및 위기경보 하향 조정 | |
| '24.7.8~8.30 | 전국 가금농장 대상 2차 점검 *1차 점검 시 미점검 및 미흡사항 확인 농장 점검 등 | |
| '24.~9월 | 야생조류 및 포유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
| '24.7월~9월 |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차단방역 교육 실시 | |